가축수송차량등에 대한 소독실시요령 고시

- 농림부, 질병전파 차단 위해 금년 7월 부터 시행 -

농림부는 지난 1월 30일 가축전염병의 차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거 「가축수송차량등에 대한 소독실시요령」을 고시하였다.

소독시설 설치대상은 도축장·도계장 등의 작업장,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조성한 축산단지,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가축사육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가축시장 등 이다.

갖추어야 할 설비로는 차량을 세척할 수 있는 세척장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장비, 어리장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세척·소독장비, 수질오염방지시설, 기타 도지사가 가축차량 등의 소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비 등이다.

또한, 소독시설경영자는 차량세차비, 소독약품비, 수질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해방지 경비 등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가축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장경영자는 가축차량운전자가 제시한 차량소독실시증명서의 발급일자등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차량소독실시증명서가 허위로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증명서에 자기농장에서 해당차량에 상차한 가축마리수와 상차일시를 기재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한 차량소독실시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농장내 진입을 거부하여야 한다. 작업장 경영자도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차량소독실시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가축차량에 대하여 작업장 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요령에 의한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과 축산단지 경영자,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차량으로 가축을 수송하는 차량의 운송업자에 대하여는 위반행위가 2회 이상 일 경우부터 미설치시는 과태료 50만원, 축산단지는 축산정책자금 지원배제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소독명령 위반시는 과태료 30만원~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본 고시는 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위반시 제재는 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농림부, 원산지표시제도 개선

-닭고기 등 24개품목 추가지정-

농림부는 수입농산물이 국산농산물로 둔갑해 판매되는 등 농산물의 부정유통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국산 농산물 및 29개 품목을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농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위치와 방법을 가공 제조 및 판매업체가 표시하는데 편리하도록 개선하였다.

지난해 7월부터 농산물의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량이 많고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비중이 크며 소비자의 관심이 큰 농산물 위주로 홍화씨, 치커리, 고본, 소엽, 형개 등 5개 농산물과 닭고기 가공품을 포함한 가공품 24개 품목을 원산지표시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농림부의 이같은 조치로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수입 농산물 1백75개품목, 국산농산물 1백48개품목, 가공품 1백5개품목 등 모두 4백28개품목으로 늘어났다.

농림부는 가공업체와 판매업체의 원산지표시 편의도모를 위해 가공품의 경우 최종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포장 전면에도,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격을 표시하는 라벨지에도 각각 원산지를 표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농산물 및 가공품의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처벌하지 않았으나 원산지 미표시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2분의 1을 부과하고 2회이상 적발될때는 2배이내에서 과태료를 중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현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미표시에 대해서는 3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주관으로 지난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7개 도시의 백화점, 쇼핑센터, 슈퍼체인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70개 품목, 가공품 69개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 이행률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 93.3%, 대형 할인매장과 재래시장내 소매점 84.1%와 86.7%, 노점상 66.9%로 나타났으며 총 평균 이행률은 91.4%로 조사됐다.

미 곡물수입 농무성보증으로 10억불 수입가능

- GSM 102 자금 국내 지원으로 수급에 도움 -

미국농업무역관이 주관한 GSM-102 프로그램 세미나가 지난 1월 22일 미국농업무역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GSM(일반판매관리차관)-102 자금에 대한 안내과 현황설명, 질의 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업계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였다.

GSM 자금은 미국농무성의 보증으로 최대 3년까지 미국 곡물을 외상 수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지난 79년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지금까지 총 79억달러를 활용하였다.

지난 연말 한국정부에서 17억불을 요청하였으나 10억불 규모로 결정되었고 총 10억불 중 1차분은 4억불이 배정되어 있다. 이는 즉시 사용가능토록 조치되어 있는데 이중 1월 22일 현재 1억7백만불이 미국 CCC(미국농산물신용공사)본부에 등록되어 있다. 2차분 6억불은 1차분이 거의 소진되어갈 시점에 조치될 예정으로 있다. 한편 미국에서의 연간 수입액은 35억불 수준이며 전세계 GSM 102 자금의 농무성 보증 총 한도는 57억불 규모이다.

이 자금의 운영방식은 1) 일반적인 수입계약이 이루어지고 2) 국내은행에 L/C개설하면 3) 미국의 수출상이 계약금액을 미농무성에 등록한 후 4) 물건수출이 이루어지고 5) 미농무성에서 수출상에 보증서를 발급하며 6) 미수출상은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7)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게되고 8) 24개월후 대금을 상환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미국내 은행의 한국의 L/C 개설은행에 돈을 융자하는 것을 미농무성이 보증하는 형식이다.

이 과정에서 미 농무성이 관여하는 이유는 미국내 은행이 L/C를 받아들일 때 용이하게 접수하게 하기 위함이며 일반융자는 6개월인 반면 현재로는 최장 24개월까지 지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미 농무성은 원리금의 98%를 보증하며 2%는 미국내 은행이 보증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내 은행이 한국의 은행에 대한 확인·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 중 12개 은행이 L/C 개설이 가능하게 등록되어 있다. 이자율은 Libor + 0.5% 이하정도로 미국내 은행이 대동소이 하다.

신용보증기금의 「부동산 담보부 보증」허용 건의

본회에서는 지난 1월 22일 농림부에 신용보증기금의 농·수·축협에 대한 「부동산 담보부 보증」허용을 건의하였다.

이는 최근 정부는 외환과 금융의 어려움을 해결키 위해 ADB 자금 10억불을 출연하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30조원으로 확대하였으나 신규보증범위 중 「부동산 담보부 보증」에 대해서는 축협 등 협동조합이 기금출연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농기업 등의 보증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담보부 보증」은 감정가액 중 협동조합에서 인정하는 대출한도외에 나머지 감정가액 여분한도까지 담보부 채권보증을 받게 될 수 있어 협동조합을 통해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 뿐만아니라 대출기관인 협동조합 측에도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이에 본회에서는 농·축협으로 하여금 보증기금에 출연토록 조치해 주거나, 재정경제원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부동산 담보부 보증」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시켜 농업관련기업도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1면에서 계속〉

소비위축을 그대로 받아들여 고착화시키기 보다는 값싸고 위생적인, 영양이 우수한 다른 동물성 단백질 보다 싼 값에 몸보신 할 수 있는 IMF 시대에 적합한 효율적인 닭고기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대 소비자 서비스를 강화하여 위축되고 있는 소비를 끌어 올려 계육업계 종사자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쉽게 요리해 먹고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우수한 닭고기를 공급하는 소비자 서비스 강화에 육계인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와 소비자 단체도 내수산업기반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경제주체별로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다.

美産 옥수수 등 곡물수급 불안 우려

미농무성이 지난 1월 13일 곡물수급보고서에서 전세계 사료곡물수급상황이 다소 악화될 것이라고 발표한 후 시카고곡물시장에서 주요 사료용 곡물인 미국산 옥수수값이 톤당 5달러 오른 1백38달러를 형성하는 등 급반등세로 돌아섰다.

미농무성의 곡물수급보고서에 따르면, 97/98년도 전세계 사료곡물 생산량중 약 65%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옥수수의 경우 생산량은 5억7천6백만톤으로 전년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사용량은 5억9천5백70만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재고비율도 전년대비 3.8%가 떨어진 10.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산 옥수수의 경우 2억3천7백90톤으로 전년보다 1백80만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량도 아시아지역에서의 수요감소로 전월예상치 보다 3백10만톤이 감소한 4천4백50만톤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미국내 사료용 옥수수의 사용량은 전월예상치인 1억4천3백50만톤에서 1억4천8백60만톤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고비율도 전년도 10%에서 9%로 떨어질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옥수수 수출을 재개한 중국이 흉작으로 올 2/4분기부터는 수출여력이 없을 것이란 예측과 미국산 신곡 작황기를 앞두고 엘리뇨현상에 의한 일기불순 및 작황불안으로 장기적인 가격급변 우려까지 겹쳐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카고 곡물시장에서 미국산 옥수수의 가격은 이에따라 24일 톤당 1백 38달러로 전날보다 5달러 올랐고, 14일에는 톤당 1백39달러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관련전문가는 그러나 "미국산 옥수수를 비롯한 국제사료곡물가격 상승은 주요 수입국인 아시아지역의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한 큰폭의 가격상승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동유럽지역의 옥수수 및 사료용소맥 수출여력도 가격상승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혀 최근의 불안한 국제곡물가격에 대해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닭고기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

미국 암연구협회(AICR)와 세계암연구재단(WCRF)은 지난 해 암예방식생활 권고에서 식생활을 개선하면 암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했다.

식생활 개선 권고안에는 붉은색 육류는 하루 80g 이하로 제한하고 되도록 닭고기, 생선 등을 섭취할 것을 권하는 한편 포화지방산인 동물성지방산의 섭취를 제한하고 불포화지방산인 식물성기름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어 불포화지방산과 리놀레산이 많은 닭고기가 암예방을 위한 식생활에 좋은 식품으로 떠 올랐다.

동 개선안은 암예방을 위해 야채, 과일, 곡식, 콩, 뿌리, 감자 등을 하루 5백~8백mg 섭취하거나 하루 5회 이상 먹을 것을 권장하는 한편 설탕, 소금의 섭취를 제한해 자연산 향료로 맛을 내고 음주, 불에 탄 고기나 불꽃에 익힌 고기나 훈제음식을 가능한한 피하고 실온에서 장기간 보존되어 곰팡이 오염 우려가 있는 음식은 삼가 할 것을 권하고 있다. (조선)

우크라이나, 닭고기 수입 증가 추세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크라이나의 닭고기 수입량이 해마다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의 한 축산전문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93년도에 불과 1천톤에 지나지 않던 닭고기 수입량이 96년도에는 3만8천톤으로 상당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3년도 당시 우크라이나의 닭고기 소비량은 38만4천톤이었으나 96년도에는 23만5천톤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경제의 여려움을 반영하였는데 97년도에는 소비량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여 24만톤이 될 것으로 잠정집계 되었다.

96년도에 수입된 물량은 국가별로는 네덜란드 48%, 미국 39%, 벨기에 4%, 이탈리아 2%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비위생적인 닭고기 생산 단속 시급

IMF시대 닭고기 소비감소에 따른 업체간의 소비시장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닭고기 유통상인들이 생산원가 인하를 위해 비위생적이고 불법적인 닭고기 생산을 조장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들어 육계생산비가 급속히 상승하자 위탁도계를 하는 경기지역 일부 유통업자들이 도계가격을 낮춰 낮은 생산비를 확보,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편법에 따른 것으로 위생닭고기 생산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계열업체들은 최근 사료값 40% 인상으로 kg 당 생산비는 2백30원 인상과 유류비 90원 인상, 운송비는 50원씩 각각 인상되는 등 작년 kg 당 육계생산비는 1천50원이 올들어 1천4백원대까지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여기에 백신비용과 병아리 가격도 들먹이고 있어 산지 생산비는 kg 당 최고 1천4백70원까지 인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일반 위탁도계를 이용하는 유통업자들은 일부 도계과정 생략을 통해 도계비를 절감하거나 무자료 거래 등의 편법으로 닭값을 낮추고 있다. 실제 kg 당 생산비 1천4백원 가운데 도계비용이 2백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육계계열업체에 비해 부정 육계유통상인들은 kg 당 1백50원선에서 위탁도계를 함으로써 낮은 닭고기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도계비절감을 위해 일부 유통업자들은 칠링 냉장과정을 생략하거나 줄여 1주일이상 장기간 유통시 닭고기의 위생 확보가 안된다.

또한 내장적출 과정에서의 다리부위를 정확히 절단하지 않거나 목부위 등 불가식부위 및 잔털제거가 미흡해 위생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닭고기 도·소매상들이 닭고기 위생이 확보된 제품보다는 낮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부적육유통업자들의 비위생적인 닭고기를 선호, 비위생적인 닭고기 생산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일반 유통업자들은 무자료 거래로 법인세 등 세금을 탈세하는 방법으로 기업회계 원칙에 따른 KS등 고급 닭고기를 생산하는 계열업체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닭고기의 품질과 위생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계육 위생관념 강화와 도계장의 해당 수의사들이 정확히 도계품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닭고기 수출입이 증가하는 위생 닭고기 생산시대에 가격보다 품질과 위생에 중점을 두는 법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 닭고기수입 10년전에 비해 70% 증가

- 96년도 기준, 생산은 6억수로 20% 감소 -

일본의 96년도 육계생산은 6억수 이하로 지난 87년의 7억여수에 비해 20%정도가 감소한 반면 수입은 55만톤에 달해 87년의 37만5천톤에 비해 약 70%가 증가하였다.

농장의 규모는 10만수에서 20만수 사이를 사육하는 경우가 전체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계시설은 2백53개소, 도계되는 육계의 평균 생체중은 2.68kg 으로 나타났다. 육계의 11%만이 통닭으로 소비됐고 나머지는 부분육이나 정육으로 가공되었다.

수입된 닭고기는 어느 형태든지 매년 증가해 왔고 95년과 비교해 약 2%가 증가한 55만톤으로 집계됐다. 수입에 있어서의 주요한 점은 생산비용면에서 우위인 태국을 제치고 중국의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이며 중국은 96년도에 20만톤이 넘는 닭고기를 수출하여 전체 수입량의 38%를 차지하였다.

닭고기가격 안정위해 긴급수매냉동비축 실시

본회에서는 지난 1월 15일 부터 3일간 소비부진으로 인한 닭고기가격의 불안정을 해소하기위해 회원사별로 총 43만수를 긴급수매냉동비축을 실시하였다.

최근 전년대비 생산량을 30%~50%정도 감축하고 있는 본회 회원사들은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소비가 극히 부진한 이유도 있지만 60%정도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본회 회원사들이 대부분 외부구매 없이 자가물량으로 충당하고 있어 시장가격형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일시에 수매 비축하였다.

회원사별 기준은 지난해 12월 4주 입식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회원사별로 교차 확인토록 하였다.

고환율시대에도 냉동수입 닭고기 경쟁력 있어

- U$ 1.30 이하 특정부위 -

환율이 U$1=1,400원으로 높게 형성되도 외국산 닭고기가 kg당 U$1.3 이하이면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환율급등으로 계육산업 일각에서 외국산 닭고기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환기 시키고 있다.

외환위기에 따라 지난 해 7월 1일 부터 완전 수입개방된 냉동닭고기의 경우 환율인상전 개설된 수입면장에 의해 전년12월 까지는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 1월들어 수입이 격감하면서 업계는 환율때문에 닭고기 수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다르게 수입업계는 kg당 1불30센트 이하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내용인 즉 환율인상으로 배합사료값, 에너지비용, 운반비 등이 올라 농가생산비가 kg당 1,500원 정도가 되면서 수율과 도계비를 감안하여 닭고기 공장도 출하가격이 2,600~2,650원으로 올라버린데다 수입닭고기의 경우 환율 1,400원 대에서 C&F U$1이면 관세, 운반·창고료감안 2,100원 정도, U$1.30 면 2,600원 정도가 되어 경쟁력이 있게된다.

1월중 수입된 냉동닭고기는 통칭해 미국산 U$1.26, 중국산 U$1.81, 태국산 U$1.71 정도로 추정되나 부분육 부위별로 가격차이가 심한데다 특정 지역 도계장의 수급에 따른 편차를 감안하면 U$1이하의 가격제품이 돌아다녀 수입선에 따라 부위별 수급에 따라 다리, 날개 등 특정제품의 수입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

국내 소비 패턴이 날개는 계속 모자라는 상황이고, 닭다리는 미국 등 가격이 매우 낮은데다 수출국 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덤핑물건의 한국시장 잠식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것 같다.

수급조절방안으로 초생추 랜더링 실시

본회 회원사들은 지난 1월 15일 부터 17일 까지 3일간 생산량 감축을 위해 과잉생산된 초생추를 랜더링 처리하였다.

이는 지난 1월 14일에 있은 2차 통합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본회 회원사 뿐만 아니라 부화업계에서도 참여의사를 밝혀 양계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당초 본회와 부화업계가 총 1백만수를 반반씩 부담하여 각각 50만수씩 처리해 수당 1백원씩 적용하여 본회에서 구매하여 랜더링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수당 50원에서 1백원정도이던 병아리 가격이 사업개시 이후에 1백50원 이상으로 인상되어 예상량에 못미치는 총 39만8천수를 랜더링 처리하였다.

랜더링 처리 수수는 하림이 32만7천8백수, 대상마니커가 3만6천수, 신기부화장이 2만2백수, 부성부화장 1만3천수 등이다.

동검, 중국산 가금육에서 가금인플루엔자 검출

- 의성상회 등에서 수입한 85톤 반송키로 -

국립동물검역소 전염병검사과에서는 지난 2월 3일 중국산 가금육 43건 8백여톤 중 의성상회 등 5개업체에서 수입된 5건 85톤에서 가금인플루엔자 H6N2가 검출되어 전량 반송키로 하였다.

농림부에서는 최근 홍콩에서 조류독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에서 수입되는 가금육에 대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전량 가금인플루엔자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산 가금육에 대한 수입을 잠정 중단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중국측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한 수입중단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검출된 이 바이러스는 홍콩에서 문제가 된 가금인플루엔자 H5N1이 아닌 H6N2 이므로 인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닭고기 우수성 리플렛 25만부 추가제작

본회에서 지난해 12월 제작한 리플렛이 좋은 반응을 보여 25만부를 추가제작 배포하였다.

소비자들이 손쉽게 닭고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리플렛은 각 회원사에서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 거래처 대리점 등에 배포하고 있다. 특히 대연식품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의 날로 정하고 직원들이 직접 현장지원을 하고 있으며 거래처나 대리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본회 회원사 생산량 감축키로

- 통합분과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

본회 통합분과위원회 정례회의가 지난 1월 14일(2차), 21일(3차), 2월 4일(4차)에 본회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되었다.

지난해 까지는 월례회로 모이던 것을 국내업계 상황의 급작한 변화에 따라 올해 들어 회원사간 긴밀한 협조를 위해 매주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회원사가 참여하여 업계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지난 2차회의에서는 최근 IMF 사태로 인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소비에 대처하기 위해 회원사 전체가 자발적으로 20%정도 생산량을 감축키로 하였다.

또한 부화업계와 연계하여 병아리를 랜더링 처리키로 하였으며, 가격 지지를 위해 총 50만수 규모의 긴급 수매 비축을 실시키로 하였다.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활동으로는 라디오 광고를 실시키로 하였으며 차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광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차회의에서는 생산량 감축문제에 대해 각사별 지난해 평균 도계량의 50% 수준으로 줄여나가기로 하였으며 중기적으로는 협회 회원사가 보유한 종계를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하였으며 전량 협회를 통해 도태키로 하였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원천적으로 원종계에서 부터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원종계업계와 협의를 통해 감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4차회의에서는 위탁도계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경기·충청지역 위탁도계장 대표와의 연석회의를 가졌다. 육계업계의 생존을 위해 회원사 전체가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합의를 하였으며 차후 모임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생산비 상승에 따른 가격변동으로 거래처의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과 영업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거래처가 변동되는 사항은 IMF 시대로 진입하면서 각종 비용 상승으로 인한 닭고기 가격 인상과 소비위축으로 영업물량이 급격히 감소한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일정물량은 임도계 업체로 이동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원사들은 철저한 거래처 관리와 함께 가격인하를 통한 무모한 거래를 자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반하는 사례 발생시 서로 공개하여 합의점을 찾기로 하였다.

또한 위생닭고기 생산을 저해하는 무자료 거래등 불법유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키 위해 회원사별로 해당사례를 조사해 본회에 통보키로 하였으며 실시기한은 차후 논의키로 하였다.

영업책임자 회의 개최

98년도 제1차 영업책임자 회의가 지난 1월 16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하림, 영육농산 등 6개 회원사와 축협중앙회 영업담당자가 참석하였으며 최근

황인옥 본회 상임고문 모친상

지난 2월 6일 황인옥 본회 고문의 모친(나영수)께서 향년 96세로 별세하였다.

깨끗하고 신선한 닭고기-
마니커®
대상마니커주식회사

산선하고 깨끗한
HAIMARROW 해마로치킨
Chicken
(주)TS해마로식품
TS HAIMARROW FOODS Co., Ltd.

냉동닭고기 환율상승 · 소비감소로 수입 줄어

- 1월중 1천1백47톤으로 전월대비 47% 감소 -

지난해 11월 까지 계속 증가하던 냉동닭고기 수입량이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감소하여 지난달 1월에는 1천1백47톤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1일부터 15일까지의 수입량이 1천2백56톤이었으나 16일부터 31일까지는 9백18톤이 수입되 전반기 대비 하반기에는 27%가 감소하였고 이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5백12톤으로 12월 하반기 대비 44%가 감소하였다. 한편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6백35톤으로 1월 전반기 대비 24% 증가하여 지난해 12월 대비 1월의 수입량은 47%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런 현상은 수입주문시와 현물도착시점이 2주에서 4주정도 차이가 나는데 11월 이후 급등한 환율의 영향으로 주문량이 줄어든것이 12월 하반기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닭고기 및 닭고기 가공품 98년 1월 1일~15일

종류	닭고기		닭고기 가공품		합계	
수입국별	수량(kg)	가격($)	수량(kg)	가격($)	수량(kg)	가격($)
미국	251,197	318,402	18	0	251,215	318,402
중국	110,494	200,545	0	0	110,494	200,545
태국	150,010	257,400	46	0	150,056	257,400
합계	511,701	776,347	64	0	511,765	776,347

■닭고기 및 닭고기 가공품 98년 1월 16일~31일

종류	닭고기		닭고기 가공품		합계	
수입국별	수량(kg)	가격($)	수량(kg)	가격($)	수량(kg)	가격($)
미국	211,026	261,201	10,716	48,163	221,742	309,364
중국	317,433	579,174	0	0	317,433	579,174
태국	107,004	194,300	0	0	107,004	194,300
합계	635,463	1,034,675	10,716	48,163	646,179	1,082,838

■97년/98년 월별 닭고기 수입 현황

종류	닭고기		닭고기 가공품		합계	
월별	수량(kg)	가격($)	수량(kg)	가격($)	수량(kg)	가격($)
1~6월	6,911,755	12,575,689	411,257	1,231,903	7,323,012	13,807,592
7월	1,088,439	1,877,789	57,616	185,623	1,146,055	2,063,412
8월	1,917,717	3,142,857	49,623	202,460	1,967,340	3,345,317
9월	1,908,000	3,712,000	40,000	173,000	1,948,000	3,885,000
10월	1,957,853	3,071,460	153,705	1,334,308	2,111,558	4,405,768
11월	2,256,812	3,514,753	21,466	86,916	2,278,278	3,601,669
12월	2,174,168	3,508,659	44,389	116,363	2,218,557	3,625,022
합계	18,214,744	31,403,207	778,056	3,330,573	18,992,800	34,733,780
98년 1월	1,147,164	1,811,022	10,780	48,163	1,157,944	1,859,185

(주)동우, 닭고기제품 KS 획득

지난 1월 14일 (주) 동우(대표 정창영)가 통닭, 부분육 제품에 대하여 KS표시허가(농림 제 80 호)를 획득하였다.

지난 96년 하반기에 공장 준공 이후 97년도에는 ISO 9002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업계 2번째로 KS를 획득하게된 것이다. (주) 동우는 현재 시간당 8천수 라인으로서 하루에 6만4천수의 도계능력을 갖추고 있다.

육용계는 역시 !!
로스, 아바에이커
ROSS
(주)삼화농원
Tell : (0451)641-1900(대)
Fax : (0451)641-1141
Arbor Acres

화이트 미트의 시대!
KS닭고기회사
하림이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회사
(주)하림
HALIM&CO.,LTD.